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인천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 “사라진 것들, 남겨진 것들”

살아오신 소중한 이야기가 연극이 되고, 영화가 되고,  
살아오신 인천이 무대가 됩니다.



2017.11.10.(금) 오후 1시  
주안노인문화센터 2층 강당

| 공연&상영 | [영화] 독사진, 우정사진, 늦은 익혼사진, 익혼사진  
[연극] 은하수 사진관

| 공연문의 | facebook. 작업장'봄' 검색  
주안노인문화센터 032-867-3312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노인문화재단    작업장'봄'    협력 문화재단연합회    전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안노인문화센터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인천이야기 포스터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라진 것들, 남겨진 것들'의 공연이 주안노인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사라진 것들, 남겨진 것들'의 공연이 4월 11일부터 6월 6일까지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 열린다. 2006년부터 시작된 '봄'의 공연은 인천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 영화,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인천의 역사를 되조망하고, 인천의 미래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 열린다. 공연 시간은 <사라진 것들, 남겨진 것들>이 11월 10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이며, 50명 정도의 관객이 관람할 수 있다. 공연문의는 작업장'봄'을 검색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이 공연은 관객 여러분께 많은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입장료는 4천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극 <은하수 사진관> / 제공 작업장 봄

이 공연은 <은하수 사진관>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감동을 전합니다. 관객 여러분께 많은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입장료는 4천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